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3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1) 상정

○ 제1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1)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 영 태 의원)

가. 주문 및 제안이유

○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으며 세계적 투자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무너졌거나,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음.

○ 대외 의존도와 금융시장 개방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며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로 피해 분야가 확산이 되어 국민경제 전체가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

○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위기, 내수와 소비의 부진, 수출의 어려움, 구인난 등이 겹쳐 있고, 환율상승으로 원자재 도입 부담 가중 등 기업경영 자체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에서 영세 중·소기업 운영의 위기 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우리시 영세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 대비 99.7% (9,230여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 늘

어나고 있음.

○ 또한,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을 기피하거나 취직을 하더라고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음.

○ 부천시 소재 영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액, 노동생산성, 경영안전성 향상 등 영세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창조적인 기술의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해소 등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가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운영중이거나 마련되어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 되어 있거나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현재보다 3배 정도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이를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마련이 절실하며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인프라의 확충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결의안 채택시 관련부서와 조치사항 등은?	○ 기업지원과이며, 결의안 채택시 조치사항으로는 시 집행부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등에서 필요한 계획수립 추진 (단, 법규적 사항은 아님).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결의문

의 안 번 호	제391호
의 결 년월일	2009. 4. 6. (제151회)

발의년월일 : 2009. 3. 31.

발 의 자 : 정영태의원등21인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도 기업운영 환경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소비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서민들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87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 30명은 영세 중·소기업 운영 위기극복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 경영 및 육성 자금의 지원을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영세 중·소기업 기술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셋째, 청·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상품수출 판로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다섯째, 영세 중·소기업 지원 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으로 상생을 통한 우수시책과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라.

여섯째, 기업 SOS 지원단과 기업현장 기동반의 상시 운영으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Speed One-stop Solution) 환경을 조성하라.

일곱째, 관내 관공서와 사업장은 물론 시민과 연계한 관내 기업제품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업마케팅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여덟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어음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9년 4월 6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